

# 경기남부여대협 지도력 구축에 대한 1차 논의

일시 : 자주 민주 통일 진군 53년 1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구국 경기 대학교 총학생회

## ● 보고 안건 ●

### 단위보고

- 선거 결과, 그리고 병중 일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총화 합시다.(기간의 기계적인 보고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충실한 보고, 총화였으면 합니다.)

### 전여대협 보고

- 전여대협의 지도력 구축과 관련한 상황

## ● 논의 안건 ●

### 1. 평가

#### 1) 96년 경기남부여대협 활동 평가

- 남부여대협 대표자 회의 평가
- 정책단 평가

#### 2) 2기 전여대협 평가

- 충노선을 주된 근거로 하여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 이 시기가 되면 누구나 얘기하듯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성과의 지점들, 개선의 지점들을 풍부화시켜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과를 부각시키는 가운데서 한계 지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내년 전망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경기남부여대협이 자기 활동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꼭 96년 경기남부여대협 활동의 성과로 챙겨 내는 승리적인 평가를 합시다!!

### 2. 4기 경기남부여대협의 전망을 세우자!!

- 97년 경제 전망 속에서의 여학생 운동, 그리고 경기남부여대협
- 97년 남부여대협 지도력 구축에 대하여
- 97년 경기남부여대협의 총적 목표를 설정해 봅시다.

오늘의 회의는 경기남부여대협의 97년 전망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인 대중 조직으로서의 형식적인 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기남부여대협이지만 97년 한해를 더욱 치열한 결의로 살겠다는 각오로 회의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각 학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의 회의 참가 성원 모두가 책임성 있고 진지한 자세로 논의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4기 경기남부여대협의 질적 도약을 우리의 결의에서부터 담보해 내겠다는 비장함으로 논의를 시작합시다.

투쟁!!~

진정으로 경기남부여대협외 비약적 발전을 꾀한다면..

조직의 고민과 요구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민하고 풀어 가겠다는 결의가

회의 참가 성원들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조직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가 하는 불신과 원망보다는

우리의 조직이 이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재출되는 모든 문제의식의 근원에서부터 혁신해 가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가 없으면 경기남부여대협의 3만 이상의 여학우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향이 여학우대중의 자주성 회복을 위한 투쟁에 있다면

모든 고민의 방향과 중심을 학우들에 맞추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에서부터 97년 경기남부여대협의 전망은 밝아 오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성과를 남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의가 드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학생 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변혁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감,

자긍심, 성과적인 평가를 가져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각인하고

논의에 임하도록 합시다..

동지들.. 힘차게 논의합시다! 행!!

## 경기남부여대협 지도력 구축에 대하여..

### \* 현재의 상황

-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대동제를 시작으로, 선거, 방학을 맞으면서 경기남부여대협 대표자 회의가 성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대표자 회의 안에서 3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내년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
- 의장을 받아 안을 학교가 없다는 막막함으로 언뜻 보면 학교간에 서로 부담을 미루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있다.

### \* 평가, 전망 속에서 97년 경기남부여대협 4기의 지도력 구축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 기간 경기남부여대협의 활동을 주요하게 살펴보면 의장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적인 상황이 의장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우리는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지 않을 수 없겠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부 인선에 대한 문제가 의장 인선보다 앞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풍부한 논의로 구체화시켜 봅시다.

### \*경기남부여대협 간부 인선이 왜 중요한가..?

- 4기 경기남부여대협 의장님의 활동을 보좌해야만 하는 것이 경기남부여대협의 지금의 상황이다. 의장님을 더욱 지도 구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상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에서부터 보좌해 낼 수 있는 간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 아직까지 정식 출범을 하고 있지 못한 건준위상태의 경기남부여대협을 힘차게 출범할 것에 대한 준비를 해 들어가야 한다. 의장님과 함께 남부총련과의 실무적인 부분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체로 나서게 될 간부의 역할은 경기남부여대협의 미래를 바꿔 놓을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밖에 간부 인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해 봅시다.

### 간부 인선이 되지 못한다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간부 인선의 중요성이 공인되었다면 이 논의를 해 가는데 있어서의 중심은 간부로 내세를 개별 주체에 대한 고민과 그의 결의를 내오는 것, 그리고 각 단위에서는 여대협 간부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을 것인가 결의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간부 인선에 어려움이 나선다고 했을 때 조직의 결정이라는 불도저를 가지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고민에 나서게 된다. 작년 정책단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간부의 역할을 다양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구축할 것에 대한 과제가 남겨지게 되겠다..

정리가 어수선하게 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고민은 많은데 충분히 정리해 내지 못해서 논의할 분들의 중심을 흐렸을 수도 있겠다는 반성이 듭니다. 뛰어나신 여러분의 역량과 자질을 믿고 논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합시다용!!